

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⑦

## 황지영

#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목)~321(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321(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ch/7508](http://www.podbang.com/ch/7508)

### 가사집

#### 노래 목록

1. 비상
2. 회상
3. 향단의 노래
4. 월매의 노래
5. wish
6. 바우덕이의 노래
7. 서동의 노래
8. 꽃과 나무 혹은 돌덩이
9. 춘향의 노래
10. 여성국극
11. 몽룡의 노래
12. 사랑가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노래 1. 비상

뒹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 장천에 높이 떠 거중으로 둥둥 필떨 날거늘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아

#### 노래 2. 회상

방자 분부들고 춘향부르러 건너간다  
맷싸있는 저 방자 태도 좋은 저 방자 조약돌 덩벙 집어 후어  
꼬꼬리도 날려보고 층층 층층 층층거리고 건너가

어떤 여자는 극장 안에서 애도 낳고  
공연이 끝나도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아  
언니 언니  
선물 주고 편지 주고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울고 불고  
편지 열어보기 겁이난다 혈서 주는 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 매일 와르르르르 쏟아지는 돈벼락에  
정신은 어질어질 두손은 허둥지둥 쓸어 담기 바쁘구나

#### 노래 3. 향단의 노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의 비나이다 명천이 감동하여  
옥중 아씨를 살려주오

#### 노래 4. 월매의 노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임자생 성춘향은 낭군 수절 헌다하여  
명재 경각이 되었으니 옥중 춘향을 살려주시오  
오늘이라도 우리사위 이몽룡씨 여사나 감사나 되어오면  
내딸 춘향을 살리려만은 어찌 이리 못온다냐

### 노래 5. Wish

거울에 비친 새카만 물결  
머리카락 한줌 손끝에서 떨어지고  
아버지의 갑옷을 꿰매 입고 길을 나서는 물란  
울음 젖은 삼베치마  
저승길 흙먼지에 피투성이 발이 되어도  
무지개 뜬 신들의 다리를 건너 기어코 구해낸다  
버려도 버리고 던져도 버린 버리버리버리 버리데기  
바리바리바리 바리데기

신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를 따르라  
불꽃이 심판이라면 나는 증언이라 오히려 나는 남는다  
잔다르크

### 노래 6. 바우덕이의 노래

아버의 죄이런가  
어미의 죄이런가  
모진 광풍이 몰아쳐도  
저 들꽃처럼 사는 우리

슬퍼도 살아야해  
웃으며 살아야해  
기억하는 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가야만해 이 길을 가야만해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네 인생

### 노래 7. 서동의 노래

이몸이 죽은후에 이산저산 해 저물어 두견새가 울거들랑  
서동이의 울음인줄 혼자 짐작 하옵시고  
제가 울든 이틀 아래 낙엽소리 들리거든  
서동이의 발자취를 혼자 생각 하옵시고  
한평생 길이길이 영화롭게 사옵소서

### 노래 8. 꽃과 나무 혹은 돌덩이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적막 옥방의 찬 자리에 생각 난 것은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 보고지고

어느 달 밝은 밤에 찾아온 꿈  
나는 그제서야 살아 있다  
달짝지근한 뜨거운 한숨 눈물이 뒤섞여 비옥한 땅이 되고

그 위로 모란 하나 빨강게 터져 오른다

춘향아, 내 사랑이지?

나는 다시 만발 하고  
꿈을 삼켜 다시 잠 속으로  
깨어나면 사라질 꿈일수록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잠에 들 뿐

언젠가 그의 손길이 닿아 이 긴 꿈 깨워주면 나는 그제서야.

내가 만일 이 옥문을 못나가고 옥중 고향이 되거르면  
생전사후 이 원한을 알아줄 이가 누구란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내신세야

### 노래 9. 춘향의 노래

나도 가지 나도 가요 한양성중을 나도 가요  
운종룡 풍종호라 용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임 가신길  
나는 어찌 못가는가 원수로구나  
원수네 그리여 존비귀천이 원수네 그리여

### 노래 10. 여성국극

임춘앵같은 남역 한 사람만  
조금앵같은 남역 한 사람만  
여성국극은 다시 살아난다  
전성기가 돌아온다

네가 남역을 살려야지  
역할이 성에 안 차도  
남역을 위해 희생해야지  
남역을 빛내줘야지  
물심양면 도와줘야지

춘향이가 몽룡이를 보내며  
옛소 도련님 지환받으오 여자의 굳은 절행 지환빛과 같사오니  
진토에 다 물어둔들 변할 리가 있으리까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 불경 이부절을 사또는 어찌 모르시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자리에 생각 난 것은 임뿐이라

그리고 거지행색 몽롱을 보아도  
내 시신을 업고 나와 묻고는 수절원사춘향지묘라 크게 새겨  
주옵소서

해야 몽롱이 어사 출두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여자역할인 거야

### 노래 11. 몽롱의 노래

너희들은 예서 떠나 우도로 염문하되 여산 익산 함열 옥구 김제  
타인으로 돌아 내월 십오일 오시 남원 광한루로 대령하라

너희들은 예서 떠나 좌도로 염문하되 고산 금산 무주 용담 진한  
장수운봉으로 돌아 광양 순천 홍양 낙안 보성 장흥 강해남 진수령을  
넘어 내월 십오일 오시 남원 광한루로 대령하라

### 노래 12 사랑가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기러기 바다를 찾고 나비는 꽃을 찾고  
바다의 게는 구멍을 찾듯이  
어서 내게 오시오

그대 나를 그리워함은  
나의 기다림이요  
그대 나를 찾는 것은  
나의 부름이니

서로의 어둠에 숨어  
상처에 입맞추면  
여자도 남자도 없던 그 시절  
하늘과 땅이 어울리네

불과 물 해와 달 나무와 꽃  
날쌔눔 느린눔 사나운눔 유순한눔 독한눔 싱거운눔  
누가누굴 부르는지 누가누굴 찾았는지  
모두가 다 사랑하던 그 시절 노래를 부르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히 이히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네 아무리 바쁘어도 중천에 멈춰 있어  
내일날 오지 말고 늙지 말게 하여 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허둥둥 내 사랑

두산아트랩 공연 2026  
황지영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2026.3.19-3.21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작창 황지영

출연 황지영 한지구  
연주 조봉국 허준혁  
사운드디자인 나슬사운드  
무대디자인 김윤지  
무대팀 유철환 최병조  
조명디자인 고민주  
조명프로그램머 최예원  
조명팀 나홍선 유채영 윤혜린 이상혁 최예원  
음향감독 정새롬  
음향오퍼레이터 천경희  
영상디자인 이화승  
영상오퍼레이터 안정빈  
프로덕션무대감독 이지혜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